

英, 불자경찰지원회 결성

“명상 수행 돕고 법당 만들 것”

영국 불자경찰지원회가 조직돼 경찰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명상을 가르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국 온라인 일간신문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현지시각으로 6월 25일 “영국 불자경찰지원회가 조직돼 새로운 방식으로 치안활동을 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 남서쪽에 위치한 데번(Devon) 콘웰(Cornwall)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게리 왓츠(Gary Watts·사진)가 불자경찰지원회(The Buddhist Police Support Network)를 조직한 주인공이다.

그는 “데번·콘웰 경찰서내 40명의 경찰들이 불자연합회에 소속돼 있다”며 “우리는 영국 전 지역 경찰서에 많은 불자들이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폭력과 범죄근절을 위해 경찰은 무력(武力)을 쓸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비폭력과 불살생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무력 행위에 대해 왓츠 경사는 “불교의 자비와 관용이 치안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왓츠 경사는 “경찰복은 국민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어떻게 불자경찰이 무력을 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비폭력(non-violence)을 불가침(non-aggression)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노와 보복을 위해 상대를 죽이고 해를 입히는 것은 비폭력에 반하는



최근 영국에서 불자경찰에게 불교교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명상 수행을 돕는 불자경찰지원회가 설립됐다. 오른쪽 그림은 불자경찰지원회(The Buddhist Police Support Network)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



Buddhist Police Support Network



행위”라며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범죄자로부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가 무력을 쓴다면 그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오해하기 심상이며 이러한 문제는 빈번히 생겨날 수 있는 딜레마이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불자연합회 소속원 대부분은 외근직보다 내근직이 많다”며 의견을 잠재했다.

왓츠 경사가 불자경찰지원회를 조직하는데는 4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불자인 그는 당시 명상수행을 하는 등 열심히 불교 생활을 했지만 혼자서 해오던 티라 고통감을 느끼던 상태였다.

이때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경찰청 내 인터넷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쓴 것. 글을 올

린 이후 그에게는 많은 답변들이 쇄도했다. 왓츠 경사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경찰들 사이에서 내 종교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다른 동료불자들은 그들이 매우 소수라고 느껴 자신이 불자라는 것을 외부로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불교를 선호하는 잠재적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당한 경험이 많다”며 “불자경찰지원회는 이들에게 불교교리와 불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왓츠 경사는 “간단하게 말해 불자회 소속 경찰들이 업무 성과를 낸다면 불자회 창립은 성공한 것”이라며 “불자경찰지원회는 불교로 개종을 생각하는 경찰들의 의견을 듣고 경찰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명상 수행도 가르치고 경찰서내 조그마한 불교 법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는 이슬람교, 기독교, 기타종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찰 모임이 있으며 불자경찰지원회는 가장 최근에 조직됐다.

불자경찰지원회는 가장 늦게 결성됐지만 회원들은 교도소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불자가 늘어날 수록 재소자 포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는 영국 교도소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 신도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재소자들 중 226명이 불자였으나 2008에는 1737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전체 8만여 재소자들 중 2%를 차지했으며 2012년 현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가율은 11년간 3681명에서 9785명으로 늘어난 이슬람교도의 증가 비율을 넘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도소의 불교수감자들은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은 후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개종한다”며 “그 이유는 수감생활동안 명상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관심을 기울여 성찰하고 이 같은 수행은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는 15만명의 불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참 자연과 정신적인 지식과 성찰을 추구하고 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영국 전체 인구의 0.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냐은 기자 oas1983@hyunbul.com

원시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세계의 불교학자(23)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美 하와이대 명예교수



일반인과 서양불교연구자들은 불교를 형이상학적 종교로 이해한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종교라든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 등 학문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칼루파하나(79·David J. Kalupahana) 美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불교를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서양의 모든 불교 연구는 부처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고있다”고 말한다.

칼루파하나 교수는 원시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초기 불교경전을 비롯해 불교사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원시불교 핵심사상이 반(反) 형이상학에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그는 “본래 붓다의 세계관은 비철학적인 반형이상학적 이었으나 실제론적이고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지닌 전통 인도종교철학의 영향에 의해 또는 여러 후기 불교학파들이 스스로 구성된 실제론적 불교이론들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스리랑카 실론대에서 학사(1959)와 석사(1961)학위를 받을 때 까지 그는 스리랑카의 전통적 불교관에 충실한 학도였다.

그리고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 대학에서 중국어와 티베트어를, 1966년 빨리(나카야)와 한역(아함경)에서의 연구(緣起)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때까지 만해도 테라바다(Theravada)전통의 불교관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전통적 견해는 1971년 하와이대 방문교수로 초빙돼 1972년 정식 교원으로 될 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당시 비교철학의 중심지에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접하게 된 그가 자신의 불교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칼루파하나 교수는 “용수(龍樹, Nagarjuna)와 세친(世親, Vasubandhu)의 철학 분석이 불교관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며 “초기불교의 정신이 두 사람(용수, 세친)에게서 회복됨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용수: 중도의 철학(1986)와 <불교심리학의 원리(1987)에서 설명한 칼루파하나 교수는 “불교철학사: 연속과 불연속(1992)”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서술한 불교철학사를 펴냈다.

<불교철학사>에서 그는 붓다에서 목갈리꽃다, 티사, 용수, 세친을 통해 복원되는 초기불교의 철학적 통찰력, 즉 무아(無我)와 연기(緣起)의 본래 의미를 분석했다. 그는 책에서 “불교철학사는 끈질긴 인간의 실체론적·형이상학적 사고 경향이

끊임없이 붓다 본래의 이론을 왜곡시켜 나가는 역사”라며 “가끔씩 나타나는 위와 같은 천재들에 의해 붓다의 철학적 통찰력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형이상학에 반대했을까. 칼루파하나 교수는 “어떤 입장이든 극단까지 밀고 나가면 형이상학이 된다. 부처가 깨달은 ‘중도’란 바로 이런 극단적 사유로부터 벗어난 삶의 태도를 말한다”며 “형이상학은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실체에 기댈 수 있게 해준다. 형이상학을 포기하면 의지할 절대자가 사라지므로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기 경전에 부합하는 해석에 몰두 ‘불교는 반형이상학적 종교’ 주장 “한국 간화선 반형이상학적”

그리고 칼루파하나 교수는 다양한 불교종파 가운데 입제선의 전통이 강한 한국 선불교가 반형이상학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불교는 지극히 형이상학적이다. 정도종은 아마타불에 의존하는 의타력 신앙으로 전락했고, 천태종은 부처를 신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입제종을 잇는 한국 선불교는 반형이상학이라는 점에서 원시불교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승불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승과 대승이라는 구별은 부의미하다. ‘소승’이란 말은 당시 문명에 참가했던 한 일파가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모든 일파를 지칭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칼루파하나를 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1886)의 제자 자야틸레케(K. N. Jayatilke)에게서 배웠다. 인식론과 언어이론에 주된 관심을 가진 그는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불교의 철학 문헌을 검토, 초기 경전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는 소승불교의 신도와 학자들에게 후대의 대승 경전의 가치를 좀더 이해하고 그 적용성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반대로 대승불교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냐은 기자

호주, 기독교신자 ↓ 불교신자 ↑

호주 통계청 “아시아인 유입 큰 이유”

호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줄어든 반면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시행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 통계청은 “기독교는 여전히 국가의 지배적인 종교로 간주되고 있지만 동양 종교가 빠르게 성장하며 그 뒤를 따라잡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전체 호주인구 2300만 여명 중 2150만 명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들중 61.1%가 교회를 가거나 기도를 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조사한 63.9%보다 약 3% 떨어진 수치다.

호주 불자 수는 1986-2006년에 비해 5배로 늘어났으며, 힌두교도들은 7배로 늘

어났다. 무종교인들은 2006년 18.7%의 비율에서 22.3%로 증가했다.

2006년 인구조사에서 5만 5000명은 ‘스타워즈(감독 조지 루카스)’에서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상의 조직 제다이(Jedi)를 기타 답변으로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호주의 기독교 쇠퇴화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의 유입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이민자들의 증가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 통계청장 앤드류 헨더슨(Andrew Henderson)은 “호주 인구의 1/4는 해외 출생자들이며 43.1%의 부모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며 “이는 기존의 호주문화에 여러나라의 문화가 섞이는 ‘컬처럴 믹스’ 현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냐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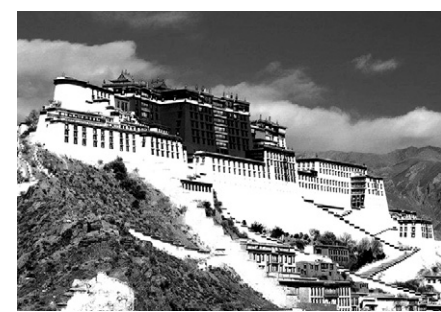
中, 티베트 경제 활성화 위해 관광단지 조성

英언론, “외국인 여행 금지령 직후 발표된 일”

중국이 티베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이 티베트 수도 라사에서 동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지역인 티베트 린즈지구(Nyingchi, 林芝)에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 지역에 약 4000만 파운드(한화 약 710억)를 투자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20여 개 마을을 조성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의 발표에 대해 “중국이 티베트 자치지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린즈지구를 국제적인 관광지조 만들고 티베트 소수민족들이 호텔, 숙박업에 종사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계획은 티베트인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텔레그래프는 “중국의 사업계획 발표는 최근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티베트 접근 금지령을 내린 직후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일부 언론들은 티베트 관광 당국과 중국 내 여행사에 확인 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지령을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다. 이냐은 기자

당신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기치유란?

치유사의 치유 에너지를 환자에게 넣어주어 병을 치유하는 기법이다.

62기치유 양성반 개강!

개강 2012년 7월 5일 목요일
오후 7:00 ~ 9:20

기간 8주 과정(주1회)

장소 윤·기치유명상 수련원(교대역 4번출구)

수련지도 윤한홍 전)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저서: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진실과 거짓

문의 한국기치유연구회 02-3482-5032, 5065
(서초동 단우빌딩 3층 윤기치유명상수련원)

기치유센터 서울 교대(본원): 02-3482-5032, 5065
대구: 053-652-2202 / 구미: 010-3233-4994

www.gihealing.com / Dtm 카페: 기치유와 기공수련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약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漢文 漢글 漢글 漢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귀의삼보 하시고!
그동안 겸용의식집으로 염불과 경전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는 스님들과 법사님들 불자님들의 격려와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소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겸용의식집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1. 기존염불(漢文念佛)과 한글염불(경전내용)을 염불 순서대로 구성하므로 한문과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2. 경전의 뜻으로 염불을 구성하므로 수지독송을 하면 경전 공부 자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염불에 불문이 없도록 운운은 없게하고 초심자도 다른 부분을 넘길 필요없이 한권의 책으로 순서대로 염불하면 된다.
4. 6권으로 분류하여 실용화하고 염불할 때 책장으로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염불에 추가책이 필요없게 하였다. (1 예경,각경 / 2 천도, 시식 / 3 수계, 방생 / 4 장의 / 5 절안 / 6 독송집)
5. 기본염불의 한글화한 경전내용 공부는 한국불교의 과제인데 방법으로 염불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 (삼보통칭)에서 삼칭을 하는 청사를 ②정은(漢文念佛)로 ①정은(한글염불)로 한다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경전공부와 한글염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화주문 : 054)974-1345.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 성목스럽게 출가하여 스님이나 법사님 또는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바랍니다.

금불 장엄사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03-1
주지 성목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기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종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관이 딱딱하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